

#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지로”

### 전북교육청 2024년 시무식... 서거석 교육감, “시대 흐름 제대로 파악해 유연하게 대처” 당부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시청 각실에서 진행된 2024년 시무식에서 “1월 18일,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 출발하게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주관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와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서 잇달아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연이은 쾌거는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조직은 내일이 없다”면서 “시대에 뒤처지는 낡고 편협한 사고를 이제는 과감히 벗어 던지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자” 당부했다.



2일 전북도교육청 시청각실에서 2024년 시무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편 이날 시무식은 군산부설초등학교 육가족의 새해 소망을 담은 동영상 상영, 그리고 떡 케이크 자르기, 전북 육가족합창단 중창 공연 등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 ▶ 도내 대학들 2024년 시무식



전북대학교가 2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시무식을 갖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 한 해를 힘차게 열었다.

## 플래그십대학으로 용비(龍飛) 다짐

### 전북대, 갑진년 한해 힘차게 시작

#### 교직원 떡국 나눔·호국원 신년 참배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시무식을 갖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 한 해를 힘차게 열었다.

이날 열린 시무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본부 보직자들, 각 단과대학장, 최병선 총동창회장, 김동근 교수회장 등을 비롯한 2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 전원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후 다함께 떡국을 나누며 활기찬 새해 첫날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공학 분야 세계 최정상 수준의 연구성과로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 한국공학학상을 수상한 이중희 교수(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와 길거리 폭행범을 제압해 화제가 됐던 김태진 교수(공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게 각각 총장상이 수여됐다.

또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는 성은경(교육혁신처), 이미현(시설과), 김대영(시설과), 고경민(산학협력실), 김석환(학사지원과), 김선순(재정기획부), 최윤정(총무과), 노윤경(학생지원과) 직원이 각각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제처는 국립국제교육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점심 이후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이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에 대한 신년 참배를 가졌다.

양오봉 총장은 “지난 한 해 글로벌 캠퍼스30 사업에 선정되는 등 성과들이 많았다”며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 준 교수님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해 감동을 실천해 온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난해가 우리대학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닦는 해였다면, 올해는 청룡의 해답게 세계로 비상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거기 위해선 우리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플래그십 대학의 실현에 구성원 모두 지혜와 의지를 모아 담대한 혁신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양 총장은 “2024년을 학생중심 대학 원년으로 선포하려 한다”며 “용이 바람과 구름을 만나 하늘로 비상하는 풍운지회(風雲之會)처럼 우리 학생들이 전북대학교를 디딤돌 삼아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용이 되어 비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전임교원 보직 인사 단행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1월 1일자로 기획처장에 임재운(약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등 전임교원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입 기획처장에 임명된 임 교수는 우석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와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우석대학교에는 2005년 부임해 약대학장과 학과장, 주요교수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학생취업처장에 임명된 심재광(문사안보학과) 교수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6년 우석대학교에 부임해 입학지원센터장과 학과장 등을 맡았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대학장에 구재학(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시범대학장에 김운태(유아특수교육과) 교수가, 간호대학장에 김성은(간호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한몽골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 ‘맞손’

### 학술 교류·공동연구 진행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서·학술자료 교환 등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한몽골학교(Khan Mongol School)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2일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제교류 협약 체결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히시게바야르 잠스란자브(HISHIGBAYAR Jamsranjav) 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진행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결 및 탐방 프로그램 추진 △학생 및 교직원 교류 △도서 및 학술자료 교환 등이다.

한편 한몽골학교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외국어고등학교로, 2021년 정식 설립 인가를 받아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 중이다.



2일 우석대학교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남천현 우석대 총장과 히시게바야르 잠스란자브(HISHIGBAYAR Jamsranjav) 한몽골학교 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교류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남천현 총장은 “양 기관이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협력 관계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정주형 우수 유학생 유치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히시게바야르 잠스란자브 교장은 “많은 학생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석대학교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2024학년도

###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4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가군 685명과 나군 774명 등 총 1,45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인원은 수시모집의 미충원 인원 중 157명을 정시모집으로 이월, 당초 계획한 1,302명보다 선발인원이 늘었다.

가군에서는 스마트공학과를 비롯해 글로벌융합대학(공공인재학부), 농생명(생명자원융합학과 제외), 사범대(체육교육과 제외), 상대, 생활대, 인문대, 자연대(스포츠과학과 제외), 치대에서 685명을 선발한다. 이 중 지역인재 전형으로 치대에서 5명을 뽑는다.

나군에서는 간호대, 공대, 사회대, 수의대, 약대, 의대, 환생대에서 774명을 선발한다. 이 중 예체는 45명,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에서 29명을 각각 선발한다.

전형방법은 예체능을 제외하고 가, 나군 모두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예체능의 경우 수능, 실기고사 성적이 반영된다.

만학도 전형 및 특성화고졸재직자(농생명 생명자원융합학과) 전형은 수시모집과 동일하다.

수능성적은 국어 및 수학영역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탐구영역의 경우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와 유웨이 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이뤄진다. 또 예체능의 경우 오는 18일 실기고사가 진행된다. 합격자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학력지원센터별로 '2024 중등 기초학력 향상 집중지원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중등 기초학력 향상 집중 지원

### 전북교육청, 중 1학년 학생 대상 18일까지

### 도내 14개 시군 학력지원센터별로 캠프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학력지원센터별로 '2024 중등 기초학력 향상 집중지원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방학 동안 주요 교과를 집중 지원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14개 시군별 학력지원센터의 역할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초학력 향상 집중지원 캠프는 기수별 1일 3교시(9시~12시)로 총 3일간 진행된다. 캠프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국어·수학·영어 과목을 집

중 지원하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포함한 학교장 추천을 받아 152명을 우선 선발했다.

학력지원센터 과학교사와 교과별 전문 강사가 참여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요구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더불어 학습결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기초학력 향상 집중지원 캠프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의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진안군·전주기전대

### 산림치유과 신입생 모집

진안군과 전주기전대학(이하 기전대)은 3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산림치유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기전대 산림치유과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진안군과 기전대학이 지난날 22일 위탁교육 업무협약을 맺고 신설한 과다.

신설과는 2년 과정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의 진안군 관내 직장인과 사업자 또는 경영체 등록한 임·농·축산·어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1월 신입생 모집 후 3월부터 진안군 산양초타운에서 야간 2일, 주말 1일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4학기 중 첫 학기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며, 나이에 따라 30%~40%의 장학금혜택과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전학기 수료시 전문학사 학위가 주어진다. 신입생 모집정원은 총 20명으로 면접을 거쳐 1월 23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는 기전대 입학홍보처와 진안군 일자리센터에서 접수하며 해당 기관에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입학문의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기전대학 입학홍보처(☎063-280-5250)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유태민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군산·새만금 중심 글로벌대학 도전”

### 국립군산대, 업무 새로 시작

국립군산대학교는 2일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업무를 새롭게 시작했다.

이장호 총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전과프리, 무학과 자율전공선택 등 혁신 모델로 우리 대학은 글로벌 대학을 목표로 진행해왔던 그동안의 목표와 성과를 가시화하며, 지역 국립대학 주도의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024년에는 현장 실습 채용 연계 공유, 2+2, 3+1 등 다양한 형태의 학사 운영을 새만금 캠퍼스 중심으로 실현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혁신 사례는 국립대 혁신모델로 전국에 확산될



것이며, 올해에도 군산·새만금 중심의 글로벌대학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3월부터 전학년 통학버스 무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을 강화하였듯이, 복지 혜택을 대폭 증대하여 교원과 직원들이 올해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대감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관문 기자

## ‘힘찬 출발, 새로운 도약’ 다짐

### 전주교대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실에서 주요 보직자, 대학, 전주부설초, 군산부설초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무식을 열고 ‘힘찬 출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열린 시무식은 개시, 국민 의례, 표창장 수여, 총장 신년사, 전주부설초, 군산부설초 교장의 새해 덕담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포상으로 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 박동룡 팀장(총무팀) 외 1명,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에 배성중 팀장(기록관리팀) 외 3명이 수상했다. 또 총장 표창으로 우수부서는 교무팀 외 2개 부서, 우수직원은 박선미 팀장



(재무팀) 외 4명이 각각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박병춘 총장은 신년사에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교권 약화에 맞물려 교육대학의 위기설이 만연한 가운데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정부 정책 변화 등에 항상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며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창의적인 초등교원 양성을 위해 우수 인재 선발, 교수·학습 환경개선과 대학 연구력 증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